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소식 *Published by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Sydney Archdiocese*

발 행 처 :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 행 인 : 임기선 요셉
주 소 :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 화 : 02 8756 3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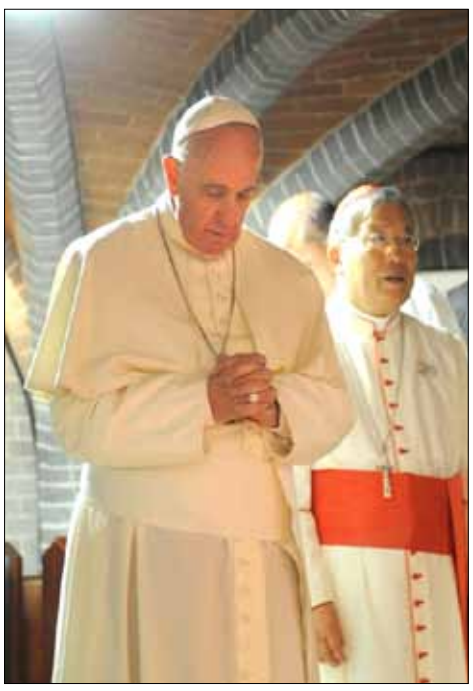
시드니 한인 가톨릭신문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 홍 야고보
수 녀 :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 정영수 요한

VOL. 111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요한 14,20 참조) 2014년 9월 1일 (월간)

VIVA PAPA!

프란치스코 교황 "이번 한국 방문은 하느님이 내게 주신 선물"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5일의 방한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달 18일 출국했다.
인종, 나라, 종교 마저도 초월하는 세계적인 교황의 인기는 이번 방한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평화와 치유의 교황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벗임을 이번 방문에서 몸소 보여준 것이다. 교황은 방한 내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아픈 이웃을 보듬고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역설해 한국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남겼다.

교황은 안전 불감증과 물질 만능주의로 불안한 한국사회에 잠시동안이지만 큰 위안을 주고 떠났다. 한국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우리 사회의 낮고 그늘진 곳으로 임했던 교황의 모습과 가르침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아파하던 우리 사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줬다. 교황이 떠나고 역사적인 방한 일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찾아보았다.

◇ 방한 첫날 '약자'부터 만나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새터민, 장애인, 이주 노동자….
14일 오전 10시16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교황이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교황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교황은 이날 공항에 나온 세월호 참사 유족 4명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이날 공항 환영행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영접, 예포 발사 외에는 이렇다 할 특별 행사가 없었다. 환영행사를 마친 뒤 국산 소형차 쏘울을 타는 교황의 서민적인 행보는 한국인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을 자아냈다.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공식 환영식을 한 뒤 박 대통령과 면담하고 정부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다. 공항에 영접 나온 박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했던 교황은 청와대 연설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 15일 '헬기 대신 KTX' 타다

방한 이틀째인 15일 교황은 헬기가 아닌 KTX를 타고 대전을 찾았다. 교황만을 위해 특별 편성된 열차가 아니라 일반 열차였다. 기차를 기다리던 100여 명의 시민은 교황의 모습이 보이자 환호했다.

교황은 이날 오전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후 첫 대중미사인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또 미사를 집전하기 전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과 유가족 10명을 만나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교황의 '파격'도 이어졌다. 무개차(오픈카)를 타고 대전 월드컵경기장에 들어서면서 교황은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시민 사이에 아이가 보이면 차를 세우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나 이마나 볼에 입을 맞췄다. 이 때문에 교황이 탄 차는 8번이나 멈춰야 했다.

오후에는 세종시 대전가톨릭대에서 아시아 청년들과 오찬을 한 뒤 헬기를 타고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 당진 솔뫼성지로 이동했다.

김대건 신부 생가에서 헌화와 묵상을 한 교황은 솔뫼성지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해 6천여 명의 아시아 청년들과 만났다. 저녁에는 예수회 재단의 서강대를 깜짝 방문했다.

◇ 16일 광화문 시복식 • 음성 꽃동네 찾다

방한 사흘째인 16일에는 교황 방한 행사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광화문 시복식이 열렸다.

교황은 이날 오전 한국천주교 최대의 순교성지인 서소문 순교성지를 참배한 뒤 곧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오전 10시부터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미사를 집전했다.

시복식에 앞서 광화문 앞 제단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신자와 시민을 만났다. 특히 교황은 차에서 내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고 34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 씨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주변 도로에는 '낮은 자'의 편에서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해 온 교황을 보기 위해 수십만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오후에는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쉼터인 충북 음성 꽃동네에 발걸음했다.

꽃동네에서 장애인들을 만난 교황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올해 78세 고령인 교황은 50여 분 내내 선 채로 장애 아동들의 공연을 관람했으며 서툴지만, 정성껏 공연을 준비한 장애 아동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들을 축복했다.

◇ 17일 "아시아 젊은이여 깨어나라!"

방한 나흘째인 17일 오전 궁정동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는 특별한 세례식이 열렸다. 교황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에게 세례를 줬다. 이 씨는 교황과 똑같은 프란치스코를 세례명으로 받았다.

교황은 이어 충남 서산시 해미 순교성지 성당으로 이동해 아시아 주교단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해미읍성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직접 집전했다. 평소 젊은이들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교황은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젊은이들에게 세상 속에서 늘 깨어 있을 것을 당부했다.

교황은 폐막 미사 강론에서 성경 시편 구절을 인용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며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폐막 미사에는 청년대회 참석자 6천여 명과 천주교 신자,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석해 교황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 방한 마지막날…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선포하다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교황은 명동성당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했다.

교황은 미사 강론을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을 향해 "죄지은 형제 일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미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 주민, 용산 참사 피해자 등 위로와 평화, 화해가 필요한 인사들이 초청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다.

교황은 미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등 한국의 12개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형제들로 서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해 환송인사를 하고 대한항공기 편으로 로마 바티칸으로 떠났다.

"124위 순교자 시복을 경축합니다"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이명순 데레사

삼성한의원
한의사 강성후
Bachelor of Medicine
"건강 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 입니다"
Strathfield 본원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2135
Lidcombe 분원
28/1-3 Mary St Lidcombe 2141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TEL:9746 3537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병원" 성모치과의 약속입니다.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료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순교 이야기

복녀 이성례 마리아

우리 겨레에게 103위 성인에 이어 124위의 영광스러운 복자 탄생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필자가 맨 처음 불러보고 싶은 이름은 "복녀 이성례 마리아"이다. 이성례(1800-1839년)는 충청도 홍주 태생으로 최경환 성인의 부인이며 최양업 신부의 어머니이다. 이성례는 상술한 형조의 마지막 보고서에 그녀의 신앙고백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인 대열(103위)에 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성례 마리아는 재심을 거쳐 90년 만에 마침내 복자에 오르셨다.

그러면 한국의 골고타로 불리는 당고개 성지(현 용산구 신계동)와 이성례 마리아의 행적에 대해 적어본다. 일반적으로 주교나 신부 또 아주 유력한 교우는 새남터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으레 서소문 밖에서 처형하였는데, 이성례를 비롯한 열분은 당고개에서 처형되었다. 형장을 옮긴 이유는 사형 시기가 구정(舊正)에 임박했기 때문에 만일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사형이 집행된다면, 대목장에 손님이 끊겨 크게 손해 볼 것을 두려워한 이 부근 상인들이, 형조판서에게 형장의 변경을 진정하여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필자가 성지순례를 위해 성지를 관리하던 삼각지 본당에 전화하니, 바로 그 주일에 현장에서 순교자 열분을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된다는 말을 듣고 참석했다. 성지의 비문에는 "스스로 하느님을 찾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겨레는 이땅에 교회를 세우고서 백 여년에 걸쳐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겪었다. 이 동안 무려 일만 여명에 이르는 신앙 선조들이 하느님을 증거하고 겨레를 구원하려고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 이곳은 1839년 음력 12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열명의 남녀 교우들이 순교함으로써 기해박해를 장엄하게 끝맺은 거룩한 순교의 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어린 자식을 거느렸던 세 어머니들은 하느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모성애까지도 이겨내고 순교의 월계관을 차지하였다. 이곳에서 목숨을 바친 아홉분의 순교자가 1984년 5월 6일 성인품에 오름으로써 이곳은 성인을 낳은 더욱 빛나는 영광의 땅이 되었다" 라고 적혀 있다. 이들에 나누어 사형이 집행된 것은 국법에 형제(홍병주, 홍영주)를 한 날에 처형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당고개 성지는 서소문 밖 네거리, 새남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성인을 탄생시킨 곳이다. 여기에서 순교하신 성인은 박종원, 홍병주, 손소벽, 이경이, 이인덕, 권진이, 홍영주, 이문우, 최영이 아홉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교자 중 오직 이성례 한 분만이 성인품에 오르지 못했다. 실상 필자는 이분의 순교지를 수소문 해서 찾아 나선 것이었으나, 이성례의 이름은 그냥 순교자로 열번째 올라 있었다. 이성례 마리아께서 이번 재심에서도 다시 누락되었다면, 순교 이야기를 연재할 기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여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아홉분의 성인을 만난 것은, 필자에게는 넝쿨 채 굴러온 행운(?)이었다. 이날 국악계의 명창인 교우가 열분 순교자의 애절한 사연을 판소리로 엮어 불러주시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특히 이성례가 굶어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실성하는 대목에서는 울지 않는 교우가 없었다.

이성례의 사형판결 죄명에는 "여자 이성례인즉 몰래 서양사람과 결탁해서 나쁜 계명을 배웠고, 죽은 서방(최경환: 프란치스코)이 천당에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교활하고 간악함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자식(최양업 신부)을 외국으로 보냄으로써 인정을 끊었다."라고 기록했다. 본래 부모와 함께 어린이를 투옥 시키는 일은 국법에 없었으나 큰 아들을 유학 보낸 이 집에 대해서는 예외였다. 옥에 갇힌 아들은 15세부터 젖먹이까지 다섯 명이다. 그들은 희정(15세), 선정(12세), 우정(9세), 신정(6세), 그리고 젖먹이(3세)였다. 한데 갇힌 최씨 일가의 비극은 그때부터 절정에 치달았으니 우선 굶주림이 닥쳐왔다. 어린이들을 옥에 가두긴 했으나 국법에 없는 일이라 밥이 나오지않았다. 어쩌다 밥 한 덩이가 나오면 어른들은 굶고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나마 얻어먹지 못한 막내는 어머니의 빈 젖을 빨다가 첫 옥사자(獄死者)가 되었다. 젖먹이 스테파노가 굶어죽자 어머니 이성례는 실성을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을 모두 굶어 죽이겠다는 모성애에서였을 것이다. 막내가 죽고 네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어미가 실성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리하여 짐짓 배교한다고 말하고 네 아들을 데리고 풀려 나왔다. 이것이 이 분이 성인 품에 오르지 못한 이유였다.

이때부터 어린 아이들은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걸식을 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나 이들을 불쌍히 여겼으나, 배교를 아는 교우들은 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이성례는 아이들을 동냥보낸 사이 남편 곁으로 돌아와 다시 갇혔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셨고, 마침내 싸늘한 시신이 된 아드님을 품에 안고도 하느님께 순종하시던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모정 때문에 천주님과 천상의 어머니를 배반하다니---통회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배교를 철회하고 다시 수감된 것이다. 감옥에 찾아온 네 아이들은 창살을 붙들고 어머니를 목메어 불렀다. 그러나 어머니는 또 한번의 배교를 겁내어, 돌아앉아 어린 아이들이 울며 부르짖는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엄마' 를 부르는 아들에게 등을 보인 채 미동 (微動: 작은 움직임) 도할 수 없었던 어머니, 그러나 15살 희정은 어머니 마음을 알고 울부짖는 어린 동생들을 달래서 발길을 돌렸다. 그리하여 4형제 거지는 다시 장안의 떠돌이가 되었다. 이제는 어느 교우 집을 가도 쌀과 음식을 한아름씩 안겨주었다. 이들 4형제는 동냥한 음식을 틈틈이 부모에게 사식으로 넣었다. 한번은 부자집에서 얻은 인절미를 사식으로 넣는데 성공했다. 그 인절미에는 어린 아들의 손가락 자국이 아들의 체온과 함께 남아 있었다. 그 인절미를 메이는 목으로 어찌 넘겼을까!

사형 며칠 전 이성례는 둘째 아들 희정의 머리를 빗겨 주면서 "이제는 다들 가거라, 천주와 성모마리아를 절대 잊지 말아라. 하느님 계명을 잘 지키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떨어지지 말고 중국 마카오에 가 있는 너희 맏형(최양업 신부)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아무쪼록 어린 동생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며칠 동안은 오지 말라고 일렀다. 치명하는 날에 아들을 보면 미진한 육친의 정에 끌릴까 두려워서 였다. 희정은 어머니가 오지 말라는 뜻을 알고 가슴이 막히고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큰 절을 올리며 돌아서는 희정(야고보)의 마지막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으랴! 나이 어린 4형제는 어머니가 순교하기 전날밤에 동냥한 돈과 쌀자루를 메고 수소문하여 희광이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 아프지 않게 단칼에 하늘 나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며 돈과 쌀자루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희광이는 이 눈물겨운 간청에 밤새 칼을 갈아 이튿날 당고개에서 그 약속을 지켜주었다. 어머니 이성례가 단칼에 치명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본 어린 4형제는 동저고리를 벗어 하늘에 던지며 어머니의 용감한 순교를 기뻐했다고 전해온다. 그날은 하얀 함박눈이 내려 순교자의 천상길을 위로해 주었다. 당시에 장안에서의 순교자들은 모두 시구문으로 불리는 광희문 밖에 내버렸다. 그러나 그날 따라 너무나 많은 시신이 굴러 떨어져 시구문 밖에는 문자 그대로 시산(屍山)을 이루어 어린 형제들은 어머니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다만 옥리들의 배려로 아버지 최경환의 시신은 친척들이 거두어 마지막 살았던 수리산에 묻었다.

온화한 성품으로 이웃을 늘 보살피던 이성례는 잡으러 온 포졸까지도 극진히 대접하여 그들 조차도 "이 사람이야 말로 진짜 천주학쟁이다" 라고 말하며 감탄했다고 전해온다. 1836년 공소를 순방하던 모방 신부는 수리산 골짜기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던 회장 최경환의 맏아들인 소년 최양업을 신학생으로 발탁했다. 사제가 된다는 영광과 감사와 가슴 벅찬 기쁨, 그러나 사학의 괴수인 사제가 된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온 집안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던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조선교회에 맏아들을 봉헌함은 바로 순교의 시작이었다. 이역만리(異域萬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외국 땅을 향해 가는 아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바위에 올라서서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던 이성례, 그러나 눈물로 떠나보낸 큰 아들은 생전에 다시는 만나지 못했으니 그날의 작별이 지상에서의 영원한 이별이었다.

다음은 복녀 권 데레사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기고 : 이진원 미카엘)

변호사 이수붕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김상진 회계사 세무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바른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균관대 법대졸업, 맥콰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교통사고, 음주운전, 민 • 형사 소송, 부동산, 비지니스 매매, 각종계약서
Suite 7 Level 1 58 The Boulevarde Strathfield
T 02 9715 1771, F 02 9715 2771
M 0433 573 213

제일종합금융
Cheil
홈론 • 비즈니스론 • 상업융자 • 건설융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에핑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교황의 선물과 우리의 과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갔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계단을 내려올 때 그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목자였다. 공항의 환영행사는 소박했다. 하지만 그 낮고 소박함은 큰 울림을 예고하고 있었다. 실제 그 울림은 거센 폭풍이 돼 이 땅을 휩쓸었다. 그 폭풍은 불신과 분열, 갈등과 대립, 무관심과 이기주의, 가치관의 혼란으로 범벅된 이 땅, 그러면서도 "정의와 평화와 일치에 대한 불멸의 희망을 품고 있는" 이 땅에 변화와 쇄신의 기운을 불어넣은 희망의 폭풍이었다.

그 희망의 진원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 자체였다. 그의 행동은 겸손하면서도 친근했고, 격의가 없었지만 경박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확하고 날카로웠으나 적대적이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고,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았다. 한결같은 목자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 감동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기를 보고 감동하라고 한국과 한국교회를 찾지 않았다. 그의 방문에는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입국하는 공항에서, 청와대와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솔뫼와 해미의 젊은이들과 만남에서, 124위 시복식에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에서, 그리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 명동성당에서까지, 교황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행동과 말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땅에 온 것은 큰 축복의 선물이었다면, 그가 말과 행동으로 전한 메시지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더 나은 내일을 가꾸기 위한 지침이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내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평화신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간직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를 주요 과제로 삼아 독자들과 나눌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4박 5일 교황의 행보에서 우리가 마땅히 귀감으로 삼아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한결같음, 신실함과 맥을 같이 한다. 교황은 공항 도착에서 출국할 때까지 한결같음을 보여줬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공항에 도착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잊지 않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교황은 방한 기간에 유가족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하는 교황의 마음은 실종자 가족 앞으로 쓴 편지와 귀국 비행기 안에서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한 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진정성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쉽게 거부되거나 배척당할 수 있다. 방한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행은 사람들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게 했을 뿐 아니라 공감하게 했다. 공감을 얻으려면 교황 자신이 밝혔듯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들의 경험과 희망과 소망과 고난과 걱정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감하는 방법의 본보기를 제시했다.

겸손함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배워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이다. 겸손은 마음의 가난함, 소박함과 뜻이 통한다. 교황은 겸손함과 소박함의 미덕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진한 감동을 안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배워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종교를 떠나 수많은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환호했지만, 그는 인기 스타나 유명 정치인으로서 방한하지 않았고 방한 기간 그렇게 처신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힘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교황은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떠났다. 하지만 교황이 말과 행동으로 남긴 메시지는 변화와 쇄신의 새로운 동력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실천하자.

-평화신문 사설 2014.8.24-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교황을 보내며 한국 성도들이 PBC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특별 홈페이지에 남긴 메시지 모음

-. 교황님, 당신께서 우리나라에 계실 때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정작 떠나시니 마음이 안좋습니다. 신자로써 교황님에 대한 마음이 왜 이리 무심했는지, 그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순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낼 수가 있었는지, 오히려 비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관심과 신앙심이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께서 이 글을 볼수는 없겠지만 이런 못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전해주시길 빕니다.(김동식 요한)

-. 존경하는 교황님. 바쁜 일정에 건강은 괜찮으실까 염려되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눈을 맞춰주시고 안아주시는 모습에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구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박히는 모습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사랑합니다!(모데스따)

-. 교황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굳건한 신앙을 주셨습니다.(이봉기)

-. 프란치스코 교황님! 꽃동네에서 장애우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시는 당신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교황님 모습을 보며, 제가 가톨릭 신자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당신 모범을 따라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고 감히 다짐해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황님! 오래오래 저희 곁에 papa로 머물러주시기를, 영육간에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임지영 에밀리아나 드림♥(임지영)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목.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9:40am,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캠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차량용 블랙박스 & 자동차 악세사리
스마트 아이에서 해결하세요
전화 : 02 8041 2110 or 0488 36 88 22
Smart Eye
Shop 16, 16-20 Henley Rd
Homebush West 2140
(플래밍턴 역에서 3분)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bush
Website 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콩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HB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벤 2대 보유
7개 라인
대표 허요셉
0431 24 24 24
9648 2424

실력이 있는곳에 세계가 몰려온다!
한진IT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키폰,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 사무실 전화 시스템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Manager
02 8064 7466
070 7899 4400